

번역표기 훈령과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후 번역 실태 연구*

정 호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 소 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생

[국문초록]

K-팝의 대명사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의 선전은 그동안 일부 지역 및 국가에 국한되어 온 한류의 존재감을 세계 대중문화의 본산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미국으로까지 확대시켰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및 방문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문화관광콘텐츠를 선별 제공하고 이를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전달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평가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부·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가차원의 번역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279호)」을 중심으로, 도입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용어 번역표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훈령의 제정과정과의 의의, 내용, 포괄적 문제점을 우선 소개한 다음,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3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용어사전의 번역표기 용례를 대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지원금을 받아 작성되었음.

제1저자: 정호정 / 교신저자: 최소희

상으로 이 훈령의 준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 분석을 통해 훈령 제정 관련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에서조차 훈령에 부합되지 못하는 번역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한 후, 본 연구가 향후 ‘공공번역’이 나아갈 방향, 번역표준화, 국가차원의 번역정책에 제기하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 공공번역, 문화관광콘텐츠, 번역표준화, 번역표기, 문체부 훈령

1. 들어가기

2019년. 그동안 동남아와 남미, 중동 등 일부 지역·국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던 한류 열풍은 드디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무대로 꼽히는 프랑스와 미국 할리우드까지 강타했다(아시아투데이; 유승목). K-팝의 대명사 방탄소년단(BTS)의 활약과 영화 “기생충(*Parasite*)”의 선전(善戰)은 그동안 ‘케이뷰티’(K-beauty), ‘먹방’ 등으로 지엽화(枝葉化)·분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였던 한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한국 대중문화 전체의 경쟁력’으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9년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수가 1750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정부는 올해 유치 목표를 2000만명으로 상향조정(조용철)했다. 외래 관광객을 포함하여 우리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문화수요자들에게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매력도를 높이려면 이들이 접하게 되는 우리 역사·문화 유산 관련 용어, 한식명, 국내 관광지명 등을 제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당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콘텐츠를 가리키는 공공용어의 번역은 해외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광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제로 방문에 이르기까지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이창수 165)한다. 따라서 이들 번역은 한류 확산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한층 더 ‘매력있는 한국’(Attractive Korea)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최근 불붙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영국

등 영미권의 한류 및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문화관광콘텐츠의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동일한 문화콘텐츠 용어가 다양함을 넘어서 제각각으로 번역되거나 표기된 채 방치되어있다. 일부 용어는 해당 용어의 뜻을 번역해 옮기는 ‘뜻풀이 중심의 번역’이 제공되는가 하면, 일부 용어는 해당 용어의 음가만을 표기하는 ‘음차역 방식의 번역’이 제시된다. 또 음차역 방식의 번역에도 표기 방식이 통일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된 번역 서비스로는 우리 문화콘텐츠를 해외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보급 확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먹방’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음식을 맛있게 대량으로 먹는 모습을 TV 등에 방영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Youtube),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전파매체를 통해 음식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방송하는 일종의 방송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런 방송방식은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해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이 장르를 ‘먹방’이라는 한국어 신조어를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먹방’의 로마자 표기는 ‘Mukbang’으로, 우리의 현재 국가 표준인 ‘Meokbang’과 달라서 검색에 혼돈을 주고, 이는 다시 ‘먹방’이라는 문화현상의 더 큰 확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식명 번역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태국음식을 제치고 고급 건강 다이어트 식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식명도 번역표기가 통일되어있지 않다. ‘불고기’를 예로 들면 ‘bulgogi’라는 음차역이 그대로 사용되는가 하면, ‘marinated beef’ ‘Korean BBQ’ ‘beef marinated with soy sauce’ 등과 같은 다양한 뜻풀이 번역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성 없는 이런 비표준화 번역 및 표기 방식은 우리 문화콘텐츠를 해외 문화수요자들에게 보급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해당 어휘·개념들의 번역방식을 일정 원칙에 따라 통일시키는 한편, 음차역의 경우에도 로마자 표기 방식을 통일·표준화하는 작업은 시급하다.

우리 문화콘텐츠의 번역 및 표기 방식을 누가 어떻게 통일하고 표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공번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번역’은 “번역의 목적, 주체, 대상, 예산의 출처를 고려해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번역으로,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예산을 지원받아 작업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사용되는 번역”(정호정과 임현경)을 가리킨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의 ‘공공번역’은 대상이 되는 문화콘텐츠를 (1) 해외 문화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필요한 정보량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가공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2) 해외 문화수요자를 위한 문화콘텐츠 번역에 대한 일관된 번역정책 및 번역전략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3) 동일한 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번역을 제공하는 한편(정호정과 임현경; 최혜원, “현황”) (4) 음차역의 경우에도 표준화된 표기를 제시함으로써 번역결과물의 수준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앞에서 예로 든 ‘떡방’의 경우나 다양한 한식명의 경우처럼,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해외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해당 용어들의 번역방식이 뜻풀이 중심에서 우리말 발음 그대로 빌려 쓰는 음차역, 즉 ‘차용’(Vinay와 Darbelnet)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해외 문화수요자들이나 우리나라를 찾을 관광객들을 위해 관련 용어들의 번역표기를 체계화하고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

우리 문화관광콘텐츠 번역표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번역 표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뤄져 온 사안이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번역 표준화’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행정·입법기관 모두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정호정과 박지수). 2001년 처음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이 번역학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은¹⁾ 이래, 현재까지 총 12건의 국책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정호정과 박지수 116-117). 이와 더불어 통번역업무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들에서도 기관별로 자체적인 번역 기준에 따라 통일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번역결과물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번역원칙 및 부처 간 관련업무 소통·조정방식을 통일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문화체육관광부, “남산”). 국내 통번역학 학술지²⁾에서는 통번역정책에 대한 연구 논문 87편이 게재되면서 이 문제가 번역정책 연구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정호정과 박지수 119). 또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지면

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문화관광콘텐츠 용어의 번역표기 표준화는 국가 차원의 번역 표준화 문제 가운데 비교적 손쉽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통일된 정책을 제정한 것이 이 분야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5년.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 및 번역현장 의견, 정책논의 성과들을 수렴하여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279호)」(이하 ‘문체부 훈령’으로 칭함)을 제정 발표했다. 이 훈령은 법령·행정 용어, 자연지형 용어, 관광지명, 역사용어, 문화용어 등의 ‘공공용어’(정호정 외 6인 11)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번역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차원의 첫 번째 번역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관광콘텐츠 용어의 번역표기 표준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문체부 훈령’이 실제로 그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 표준화라는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된 이 지침이 유관기관에 충분히 보급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단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번역학연구 면에서도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훈령 제정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훈령의 제정 과정, 의의와 효과, 실제 적용상황 등을 다룬 번역학계의 연구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통번역학 이외의 분야 논문 2편³⁾에서만 이 문제를 간단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 훈령의 제정 사실이 번역학계에 적극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이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체부 훈령’의 제정 과정과 의의, 기대효과, 적용 현황 등을 번역학연구 대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콘텐츠 번역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훈령의 현황 및 실효성을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 다음을 살펴볼 것이다.

- (1) '문체부 훈령'은 어떠한 배경에서 제정되고 유관 정부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전달·전파되었는가?
- (2) 공표 이후 유관 정부기관들의 번역사례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 (3) 공표 이후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 (4) 위 실효성이 낮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문체부 훈령의 제정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훈령을 바탕으로 유관 정부기관들의 번역표기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황을 진단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훈령의 번역현장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국가차원 공공번역이 전반적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

2. 번역 및 표기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2.1. 훈령 제정 배경 및 과정

그동안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번역원칙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번역학계, 그중에서도 국가차원 번역정책에 관한 학계의 연구 성과 및 제언이 있었다. 2007년 한국문학번역원 발주로 이루어진 정호정 외(정호정 외 2인)에서는 문화관광, 기초예술분야, 한국학 분야 공공기관 번역 실태를 분석하여 수준 낮은 번역결과물의 원인으로 안정적인 전문 번역인력 풀의 부재, 용어집 및 참고자료 부족, 번역 브리프(Nord)의 부재 등의 작업 환경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부문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 개입할 것과, 번역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평가·감수 시스템을 도입할 것, 통번역사 인증제도를 구축할 것 등의 국가 번역정책을 제안했다.

2013년 국립국어원 발주로 수행된 정호정 외(정호정 외 6인)의 연구에서는 기관별 독립적 번역지침의 운영, 기관별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표기의 일관성 및 통일성 부족 실태

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또 국내적으로는 실제 번역을 담당하는 실무자 및 전문 번역사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번역 환경을 세밀하게 고찰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공공번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해외사례를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으로 국가 주도의 번역 표준화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 결론에서는 국내외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영·중·일 ‘번역지침 및 표기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이 ‘번역지침 및 표기 기준’은 본 연구 대상인 ‘문체부 훈령’의 번역원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체부 훈령’의 모태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정호정 외 연구 이후 국립국어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언어권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공번역 실태를 추가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통일된 번역지침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런 번역학계의 연구 노력, 특히 번역정책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통일된 번역표기 원칙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가차원의 번역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통일된 번역표기방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처음 구체화된 것은 2013년이다.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등이 모여 한식명 표준 번역안을 마련한 것이 출발점이 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한식 일본어”). 그 결과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각계 기관이 모여 표준화를 위한 움직임을 연쇄적으로 시도했다(문화재청).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가 주축이 된 이 협의체에서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지침(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5년 발표된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279호)」의 토대가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남산”).

2014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이 시행되면서 공공번역 번역지침 제정 사업이 시작되었다. 국립국어원이 이 사업의 주축으로 등장한 것은 그동안 지명·인명·기관명·한국 문화관련 용어 등의 로마자 표기 사업을 주관해왔고, 2010년부터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 편찬, 전문용어 표준화 등 번역 관련 사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최혜원, “국가의 역할”). 이후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용어 번역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영·중·일 3개 언어의 번역전문가를 채용,

유관기관 간의 소통 및 협업 부재로 인해 번역안이 혼재된 채 방치되어 온 것을 해결하는 연락망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2015년, 구체적인 훈령 작성의 대상 분야로 도로와 관광안내 용어 부문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국토부, 문화재청, 국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방지형정보단,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의 8곳이 유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들 기관이 모여 3차례⁴⁾ 협의회의를 진행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남산”). 한편 같은 해 3월, 문체부 주관으로 번역표기 방식에 대한 외국인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되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고 정보 전달력도 높은 번역표기 방식을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이 조사는 주한 외국 대사관 직원과 한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관광객은 1:1 대면조사, 대사관 직원은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지명 ‘남산’의 번역표기 예에서처럼 ‘남산’이라는 고유한 ‘명칭’과 ‘산’이라는 ‘속성’을 함께 번역하되 괄호 없이 병기하는 ‘Namsan Mountain’의 표기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답변이 우세(관광객 62%, 대사관 직원 68.3%)했다. 반면 ‘명칭’과 ‘속성’을 구분해서 번역해 주지 않아 해당 어휘가 어떤 ‘속성’에 해당하는 ‘명칭’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불편하다는 답변도 많았다(관광객 45.3%, 대사관 직원 37%).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명 표기법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통일안’이 마련되었다. 또 협의회에 참여하는 개별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관련법령⁵⁾을 개정하고 개정법률에 연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할 것에도 동의했다(문화체육관광부, “남산”).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로·관광에 대한 번역 통일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계 부처·지자체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그 외 항목을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29일,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지침(안)」이 「문체부 훈령」으로 확정되었다. 이 표기 및 번역지침의 대상은 원래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다양한 분야가 모두 망라되어 있었으나 최종 훈령에서는 한식 및 전통문화 관련 분야는 일단 제외되었다. 또 원래는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본어의 세 언어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완성된 훈령에서는 영어 지침만 제시되었다. 또 내용의 완결성과 정책적인 적용 의지 면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⁶⁾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의 입장과 주장을 모두 반영하고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 제정된 용어번역 통일안에 따라 참여기관들이 관련 법규를 연계 개정하는 작업 역시 해당 기관들의 재량에 맡겨졌다는 점 등은 훈령의 강제력이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이 훈령이 갖는 의의는 우선 그동안 번역정책 관련하여 학계에서 제시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실무진들의 구수회의와 합의를 통해 제정된 지침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지도와 실제 활용도는 애초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우선 훈령의 대상 및 내용에서부터 찾아보자.

2.2. 훈령의 번역표기 기본원칙과 대상 범위

국가적인 번역 표준화 기준에 대한 학계, 일반 대중,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내 실무자 등의 요구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문체부 훈령'이니만큼, 이 훈령은 '제1조 목적'에서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추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영어 번역 및 표기 가운데에서도 한영 번역)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며, 대상으로 교통, 관광, 문화 분야의 공공용어를 아우른다.

이 훈령에서 주목할 점은 번역표기 원칙을 제시하면서 대상용어를 구조적으로 '전부요소(前部要素)'와 '후부요소(後部要素)'로 나누어 취급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용어의 '개별성'을 나타내는데, 흔히 '명칭'이라고 부르는 정보에 해당한다. 후자는 '보편성'을 가리키는데, 흔히 '속성'이라고 부르는 정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강'이라는 지명의 경우, 어떤 특정한 강임을 나타내주는 개별성이 '한'이라는 '전부요소'로 나타나고, 이 지명의 보편적인 성질 또는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강'이라는 '후부요소'로 구분되게 된다. 따라서 문체부 훈령에 따른 공공용어 번역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전

부요소와 후부요소를 구분하여 번역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구분 이후 이루어지는 번역은 다시 크게 ‘로마자 표기’와 뜻풀이 번역, 곧 ‘의미역’(意味譯)의 두 방식으로 나뉜다. 번역학에서 ‘음차역(transliteration)’이라고 부르는 전자의 방식은 구체적인 음가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반면 후자인 ‘의미역’은 이렇게 단일원칙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복잡하다. 번역대상 용어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대응어를 제시하거나, 대응어가 없는 경우 등가표현으로 전환하거나⁸⁾, 경우에 따라 직역 및 의역을 통한 신조어 형성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의미역 결과물, 또는 ‘후부요소의 표준 번역안’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번역기법이 혼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응어 중심의 번역방식은 ‘Family Court’로 번역되는 ‘가정법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19안전센터’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등가표현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Fire House’, 또는 ‘911 Service’가 번역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 ‘구청’은 우리나라 행정단위의 하나인 ‘구’를 그대로 살려 ‘-gu Office’로, ‘한방병원’은 원래 기능을 강조하는 의역 ‘Traditional Korean Medical Center’가 번역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홈페이지에서 19년 9월 30일 발췌). 한마디로 일관되고 통일된 번역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1〉 훈령의 주요 범주별 지침 및 예시

범주	지침 내용		예시
자연 지명	‘전체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		한강 Hangang River
인공 지명	‘전부요소 로마자 표기 + 후부요소 의미역’		광장 시장 Gwangjang Market
	숫자	‘아라비아숫자(로마자 표기)’로 표기할 수 있음	영동 3교 Yeongdong 3(sam)-gyo
	문화재명 자연 지명	의미역 생략	송례문 Sungnyemun
정거장명	‘○거리’	로마자로만 표기	가양 사거리 Gayang Sageori
	‘(방향)문’ ‘정문’	의미역	경복궁 동문 Gyeongbokgung East Gate
	‘앞’, ‘입구’	번역하지 않음	대모산 입구 Daemosan

즉 번역표기의 대상인 어휘를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나누어 두 요소 모두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번역한다는 원칙 이외에, ‘후부요소’의 번역을 모두 아우르는 번역원칙의 제시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훈령 적용의 대상과 표기 면에서는 비교적 일치된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대상에는 일단 ‘자연 지명’, ‘인공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 구역’, ‘정거장명’이 포함된다. 이 4가지 용어 범주 가운데 부처 간 협의에 따라 ‘문화재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을, ‘도로명 및 행정 구역’은 행정자치부의 「새 주소(도로명 주소) 업무 편람」을 따르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범주에 적용될 번역지침을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훈령에는 로마자 표기 시 대소문자 구분 사용 원칙도 밝혀져 있어서, 해당용어가 표제어로 사용될 때 앞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관사와 전치사는 첫 단어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정해놓았다. 또 지면 제약이 있는 경우 후부요소의 축약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 밖에 주요 표제어 70개에 대한 약어 목록을 제시하여, 약어에 대한 국가 표준 표기도 제안하고 있다.

2.3. 훈령 제정 이후 현황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2015년 12월 ‘문체부 훈령’이 제정되면서 유관기관의 관련 법령들도 원칙적으로 연계하여 정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 규칙(예규 제2015-1223호)」을 2015년 10월 22일 발표(실제 시행일 2016년 1월 1일)하면서, 제8조 3항에서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명문조항을 두었다. 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예규 제91호)」의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29일에 발표하면서, 16개 항목의 표기가 “공공용어 영문 번역 통일 추진(문체부 주관)과 연계하여 지명의 영문 표기 방식을 정함”에 따라 개정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일부 정부기관들은 외국어 용례 사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훈령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번역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6년 개통한 <공공언어 통합 지원> 사이트를 통해 자체 번역안은 물론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협의체에서 마련한 번역안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직 번역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번역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표준 번역안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⁹⁾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어 표기사전> 사이트를 운영하여 훈령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한 번역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용례사전> 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부처 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된 표준화 번역’의 성과는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만 보아도 동일한 번역언어조합에 대해 여전히 혼재된 번역표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지명인 ‘동백섬’의 경우 훈령에 따른 번역대안은 ‘Dongbaekseom Island’이지만 부산한국관광공사만 이 번역안을 채택하고 있고, 부산시청은 여전히 ‘Dongbaek Island’를 고수하고 있다(2019년 10월 7일 검색). 관광명소 안내 표지판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눈에 띄는데, 부산 ‘용궁사’가 도로 표지판, 안내판, 관광 안내문 등에 각각 ‘Yongkung Temple’, ‘Yonggung

Temple', 'Yong Gung Temple', 'Yonggungsa Temple'과 같이 제각각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구분은 통일되어있는 듯하지만, 전부요소에 해당하는 명칭의 음절표기가 원칙 없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번역표기가 병존하는 것은 공공번역 발주와 관리가 관련기관 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공공번역 수급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유관공공기관의 번역표기를 통일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된 문체부 훈령은 그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훈령 발표 이후 공공용어 번역표기 현황을 살펴보자.

3. 훈령 공포 이후 공공용어 번역표기 현황 분석

3.1. 분석 대상

앞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문체부 훈령’ 제정공표를 계기로 유관 정부기관의 번역표기가 통일되고 표준화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으로 ‘문체부 훈령’ 제정 작업에 참여한 8개 협의체 가운데 온라인 영어 번역안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의 번역안이 이 훈령의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¹⁰⁾하였다.

〈표2〉 분석 대상 및 대상별 특징

	유관기관 별 운영 사전 명칭		
	<서울특별시 외국어 표기사전>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용례사전>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번역 기준	▷ ‘문체부 훈령’	▷ 정보 없음	▷ 의미역
번역 분야	▷ 공공기관 ▷ 행정구역/도로명주소 ▷ 자연 지명 ▷ 교통 ▷ 관광/문화 ▷ 쇼핑 ▷ 음식 ▷ 숙박 ▷ 의료/복지 ▷ 교육 ▷ 언론/금융/종교 ▷ 단체/빌딩/주거시설	▷ 관광지 ▷ 음식 ▷ 행정공공시설 ▷ 숙박 ▷ 쇼핑 ▷ 교통 ▷ 축제/공연/행사 ▷ 기타용례	▷ 지리 ▷ 역사 ▷ 정치·법제 ▷ 경제·산업 ▷ 사회 ▷ 과학 ▷ 문학 ▷ 언어 ▷ 종교·철학 ▷ 예술·체육 ▷ 언론·출판 ▷ 교육 ▷ 생활

(서울특별시 '19.09.27. 한국관광공사 '19.10.01. 한국학중앙연구원 '19.10.09. 기준)

또한 훈령 제정 목적이 국가 번역원칙의 표준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모두 이 훈령을 실제 자신의 기관 번역표기에 반영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훈령 제정 협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연구와 확산을 위해 1978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단체)의 번역 사전 서비스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본 연구 목적이 공공용어의 번역표기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이들 공공용어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는 사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자료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 <표2>이다.

3.2. 분석 범위 및 방법

분석범위로는 위 3종의 온라인 사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만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사전의 경우, 사이트 하단에 “단, 항목 중 도로명주소 영문은 행정안전부에, 문화재명 영문은 문화재청에 [...]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용례들은 서울특별시의 자체적 번역안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번역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 사전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등의 번역 용례사전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열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번역안은 해당 기관 번역안을 따른다는 의미임을 확인(2019. 9. 30 일자 통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재명’ 및 ‘도로명 및 행정 구역’ 용어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3종의 연구대상 사전에서 추출된 용례들이 ‘문체부 훈령’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일일이 비교·분석할 것이다. 특히 (1) 3종의 사전에 동일한 번역안이 사용되고 있는가 (2) 3종 사전의 용례들이 훈령의 지침에 맞도록 번역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평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 분석을 위해서는 27종의 예시사례에 해당하는 번역을 모두 찾아 훈령에 제시된 예시들과 동일하게 번역표기 되어있는지를 확인했다. 원래 훈령에서 제시한 예시사례의 종류는 모두 37종이다. 그러나 ‘문화재명’과 ‘도로명 및 행정 구역’의 예시사례 8종, 제6조 3항(기관의 공식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는 조항)에 해당하는 예시사례 2종을 제외한 나머지 27종만 분석하였다. 제6조 3항을 제외한 것은 기관의 공식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훈령이 제정된 2015년의 예시사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훈령과의 불일치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훈령의 예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화

시장 Pyeonghwa Mkt.’과 같이 지면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후부요소 의미역을 생략하거나 약어로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위 번역을 불일치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앞서 논의한 ‘평화 시장’이 한국관광공사 사전에는 ‘Pyeonghwa Market’로 등재돼 있었다. 이는 훈령 예시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관 공식 영문명¹¹⁾을 기준으로 할 때 제6조 3항의 ‘기관의 공식 영문 명칭을 따른다’는 규정에 부합되므로 불일치로 판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문명의 띄어쓰기 여부가 번역표기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불일치로 판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대방 삼거리’의 경우 훈령 예시에서는 ‘Sindaebang Sameori’를 번역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사전에서는 국문명이 띄어쓰기 없이 ‘신대방삼거리’이며, 이에 따라 번역안도 ‘Sindaebangsameori’로 제시되었다. 이런 경우들도 불일치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후부요소의 의미역 결과물이 번역적으로 가장 적합한지 여부 역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부요소의 의미역은 매우 다양한 번역 기법이 적용되어 생산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번역안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명 ‘가칠봉’의 번역안으로 ‘봉’을 ‘peak’로 번역한 결과물과 ‘mountain’으로 번역한 대안이 혼재한다. 그러나 이 두 대안 가운데 어떤 것이 번역적으로 더 적합한지 여부¹²⁾는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문체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를 구분하고, 후부요소에 대한 별도의 의미역을 제공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3〉 연구 대상 데이터 개수

출처 분류	서울특별시 사전			한국관광공사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		
	소분류	개수	총합	소분류	개수	총합	소분류	개수	총합
자연 지명	산	39	187	산	1,037	2,090	지리	66	66
	강/하천/호수	63		계곡	229				
	고개/골짜기	4		명승지	94				
	기타	81		숲	79				
				연못/습지	88				
				하천/강	97				
				호수/저수지/ 포구	194				
				섬	198				
				샘/우물/ 약수터	43				
				퇴적지/분지/ 분화구	31				
인공 지명	정부기관	111	111	공공기관/ 단체	493	493	없음		
정거 장명	지하철/광역 전철역	867	2,064	기차(역)	296	296	없음		
	버스정류장	1,189							
	기차역	8							
합 계	2,362			2,879			66		

(서울특별시 '19.09.27. 한국관광공사 '19.10.01. 한국학중앙연구원 '19.10.09. 기준)

2단계 분석에서는 분석범위로 포함된 3개 범주, 곧 ‘자연 지명’, ‘인공 지명’, ‘정거장명’에 속하는 10개 종류에 대한 번역표기 규정이 3종의 사전의 표제어 번역표기에 실제로 반영되어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훈령이 적용되는 용례들을 선별한 후, 분석 범위에 속한 사례들을 일일이 분석하여 지침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했다.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 개수를 정리한 것이 <표3>이다.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은 문화재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상당히 한정적이었다. 이 사전의 ‘지리’ 분류에 속하는 표제어는 총 238건이다. 그러나 특정

지도 이름이나 옛 수도 이름처럼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지리 표제어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존하는 지명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66건뿐이다.

4. 유관 정부기관들의 번역표기 준수 현황 및 논의

4.1. 지침에 포함된 용례들의 준수

문체부 훈령의 예시사례 27종 가운데 국문 표제어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사전에는 18종, 한국관광공사 사전에는 14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에는 2종에 해당하는 사례가 등록되어 있었다. 서울특별시 사전은 서울특별시 내 지명, 서울 및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내 정거장명만을 다루기 때문에 훈령 예시 중에서 제외되는 용례들이 있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사전은 버스 정류장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표제어들이 다수 제외되어 14건만이 검색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주로 문화재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다루므로 연구 대상 데이터의 수가 전반적으로 적었다.

각각의 번역안을 훈령에서 제시한 번역안과 비교해 본 결과, 불일치 사례 건수는 서울특별시 사전은 2건, 한국관광공사 사전은 1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은 1건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 <표4>이다.

〈표4〉 훈령 내 예시와의 불일치 사례

표제어	분류	훈령 표기	서울특별시 표기	한국관광공사 표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표기
한강	자연 지명	Hangang River	Hangang River	Hangang River	Han River ¹³⁾
용담폭포	자연 지명	Yongdam-pokpo Falls	없음	Yongdam Falls	없음
청계 4가	정거장명	Cheonggye 4(sa)-ga	Cheonggye 4(sa)ga	없음	없음
승례문	정거장명	Sungnyemun	Sungnyemun Gate ¹⁴⁾	없음	없음

(서울특별시 '19.09.27. 한국관광공사 '19.10.01, 한국학중앙연구원 '19.10.09. 기준)

우선 ‘한강’과 ‘용담폭포’는 훈령 제5조 1항에서 제시한 번역원칙 ‘지명 전체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전부요소만 로마자로 표기하여 지침 예시에 어긋나는 번역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청계 4가’는 훈령 제9조 1항 ‘아라비아 숫자는 “(로마자 표기)”를 덧붙일 수 있다’가 적용되는 사례이다. 거리나 지역을 뜻하는 표현 ‘가(街)’의 번역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a’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용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승례문’은 문화재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로, 제9조 2항에 따라 의미역을 생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용례에서는 의미역 ‘Gate’를 덧붙였다. 반면, ‘승례문’이 들어간 다른 정류장명에서는 ‘Sungnyemu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서울특별시 번역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번역안들에서도 훈령의 예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훈령의 예시 이외에 다른 용례에서 훈령의 번역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더 넓혀 2차 분석을 진행했다.

4.2. 지침에 제시된 번역원칙의 적용 여부

2차 분석에서는 ‘자연 지명’, ‘인공 지명’, ‘정거장명’에 해당하는 번역표기 규정이 3종의 사전에 실제로 반영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공 지명 항목에서는 대체로 훈령의 번역표기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정거장명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전과 한국관광공사 사전에 등재된 기차역명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서울특별시 사전의 버스정거장명에서 일부 오류가 나타났다. 총 1,189건 중 62건이 ‘문체부 훈령’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로마자 표기법의 거리·지역을 표기하는 방법을 어긴 사례(총 48건)’, ‘지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총 11건)’, ‘지침을 어긴 사례(총 2건)’, ‘단순 오류(1건)’로 분류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와 ‘길’은 ‘-ro’, ‘-gil’로 표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용례들이다. 예를 들어 ‘을지로3가’는 ‘Euljiro 3(sam)-ga’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줄표(-)없이 ‘Euljiro 3(sam)ga’로 번역했다. 이러한 오류는 비슷한 유형의 용례에서 모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으로, 지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보다는 작업자의 실수로 보인다. 따라서 번역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사례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청계5가—Cheonggye 5(o)ga’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의 발음을 괄호 안에 로마자 표기로 병기한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명륜3가 —Myeongnyun 3-ga’와 같이 발음을 병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훈령 제9조 1항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로마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병기하지 않더라도 지침 자체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도 아라비아 숫자의 표기 방식을 통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출발어의 ‘앞’과 ‘입구’는 통상적으로 번역하지 않지만 다른 역명과 구분이 필요할 때엔 번역한다”는 제9조 5항을 따르지 않은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동묘앞역’은 동일한 버스 노선에 ‘동묘역’과 연이어 나오는 역명으로,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지만 둘 다 ‘Dongmyo Station’로 번역되었다. 세 번째 경우는 ‘○○거리’는 로

마자 표기만 한다는 지침을 어긴 ‘돈암사거리 Donam Junction’와 1차 분석에서 논의한 ‘승례문’의 사례이다. 마지막 경우는 출발어와 도착어가 잘못 짝지어진 경우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보인다.

하지만 자연 지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총 187건 중 58건, 한국관광공사는 2,090건 중 846건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66건 전부를 지침에 어긋나게 번역했다. 특이한 점은 정겨장명과 달리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례들끼리 특정한 패턴을 띄면서 지침과는 다른 번역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번역 패턴에 따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5> 훈령과 불일치한 자연 지명 용례들의 번역 패턴 분석

번호	기관	관찰된 번역 패턴	후부요소	사례
1	서울특별시	“전부요소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	못/연못(4)	거울못 Geoul Pond
			약수/약수터(8)	구암약수 Guam Mineral Spring
			호/호수(11)	석촌호수 Seokchon Lake
			계곡/폭포(8)	불암폭포 Buram Waterfall
			습지(3)	방이습지 Bangi Wetland
	한국관광공사		폭포(91)	구곡폭포 Gugok Falls
			숲/림(79)	계림정숲 Gyerimjeong Forest
			동굴(20)	고수동굴 Gosu Cave
			능선/산맥/정맥(10)	가리능선 Gari Ridge
			적벽(3)	물염적벽 Muryeom Red Cliff
			강변/둔치/가람터(13)	시천가람터 Sicheon Riverside
			연못/습지/갯벌(87)	가주연못 Gangju Pond
			반도(4)	고흥반도 Goheung Peninsula
			계곡/구곡(181)	구기계곡 Gugi Valley
			호수/저수지/포구(90)	공천포구 Gongcheon Port
			나루(16)	주룡나루 Juryong Quay
			약수/약수터(25)	오읍약수터 Oeup Mineral Spring
			해안(7)	하모해안 Hamo Beach

			평야(3)	연백평야 Yeonbaek Plains
2	한국관 광공사	“전부요소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이 원칙 단, 전부요소가 1음절일 때 명칭 전체 로마자 표기	고개/동산(20)	жат고개 Jatgogae Pass 진말고개 Jinmal Pass
			오름(5)	시오름 Sioreum Parasitic Cone 알방애오름 Albangae Parasitic Cone
			바위(62)	곰바위 Gombawi Rock 나비바위 Nabi Rock
3	한국관 광공사	“명칭 전체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이 원칙 단, 전부요소가 3음절 이상인 경우, “전부요소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	산/봉(19)	가야산 Gayasan Mountain 가리왕산 Gariwang Mountain
			굴(2)	복신굴 Boksingul Cave 사효자굴 Sahyoja Cave
			골(4)	감골 Gamgol Valley 구라이골 Gurai Valley
4	서울특 별시	“명칭 전체 로마자 표기”	나루(2)	광나루 Gwangnaru
			골(3)	무수골 Musugol
5	한국관 광공사	“후부요소 의미역+명칭 전체 로마자 표기”	코지(3)	섭지코지 Cape Seopjikoji
6	한국관 광공사	지역명/상위 명칭이 함께 표기된 경우, 전치사로 두 관계를 표현	범주 무관(99)	감천축백수림 Oriental Arborvitae Forest of Gamcheon
7	한국학 중앙연 구원	“전체 의미역”	범주 무관(66)	백두산 White Head Mountain

(서울특별시 '19.09.27. 한국관광공사'19.10.01. 한국학중앙연구원 '19.10.09.기준)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후부요소 항목의 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가 전체 오류 사례를 모두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표에는 전체적인 번역 패턴을 기준으로 해당 사례 수가 표시되어 있고, 이에 속하지 않는 일부 사례는 별도로 설명하였다. 또 표 제목의 ‘후부요소’는 ‘국문명의 후부요소’를 뜻한다. 후부요소 옆에 괄호로 제시된 아래

비아 숫자는 훈령과 맞지 않은 방식으로 번역된 사례 건수이다.

위의 패턴을 종합해 보면, 1, 2, 3번 항목에서 전부요소의 음절수에 따른 번역 규칙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부요소가 1음절 이하일 경우 후부요소의 로마자 표기를 추가하는 원칙, 그리고 3음절 이상일 경우 이를 생략하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모든 자연 지명 번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후부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번역원칙이 적용되는 용례의 기준은 ‘속성’이 아닌 ‘후부요소’로 추측되는데, 가령 ‘골’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사전에서 ‘계곡/구곡’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지만 번역원칙은 다르다. 서울특별시 경우에도 특정 후부요소에 대한 로마자 표기를 삭제하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훈령에서는 자연 지명의 경우 모든 명칭을 로마자 표기하는 원칙(제5조 1항)만을 제시했으므로 이것 역시 기관의 자체원칙으로 보인다.

훈령의 제5조 2항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과 지도 등에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공간상 제약이 있을 경우 후부요소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3번에 제시된 서울특별시 지침은 ‘자연 지명’ 카테고리 내에 있는 용례로, 도로 표지판이나 지도 등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훈령에 부합되지 않는 번역 방식이다. 5번 항목 역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표기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훈령에 어긋난다.

6번 항목은 훈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범위의 번역원칙이다. 훈령에서는 표제어 앞에 지역명이나 상위 지명의 명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국립국어원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관광·문화 용어의 번역 실태 조사에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광·문화 용어 표기 지침’을 제시하여 보완하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김혜림 외 6인). 따라서 6번 항목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했으리라 추측된다.

마지막 7번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훈령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령이 한 표제어를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나눈 것에 반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표제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의미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 방식을 평가하는 것은 본 연구 범위가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겠으나, 다만

훈령의 번역원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훈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훈령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협의체의 기관에서는 훈령의 입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기관의 이러한 개별 번역 기준은 훈령이 마련된 목적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동일한 출발어 용어에 대해 세 기관이 모두 다른 방식의 번역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는 ‘나루’의 번역 기준을 ‘전부요소 로마자 표기+후부요소 의미역’으로 제시했지만,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전체 명칭 로마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나루에 대한 예시는 없었지만 번역을 했더라면 자체 기준에 따라 다른 의미역 결과물을 내놓았을 것이다. 이렇듯 훈령에서 번역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기관들은 자체 내 기준에 따라 번역을 하여, 결국 기관마다 다른 번역안, 즉 통일되지 않은 번역결과물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동일한 속성 내에서도 통일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특별시 사전에서 ‘바위’가 이에 해당했는데, 바위의 총 용례 5건 중 2건은 ‘문체부 훈령’에 따라 번역된 반면, 나머지 3건은 ‘Dolmunbawi(돌문바위)’의 경우와 같이 후부요소가 빠진 채 번역되었다. 이는 특별한 기준에 따른 오류라기보다는 단순한 통일성 부재의 문제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용례의 분류 오류로 나타난 번역 오류의 사례가 서울특별시 사전에서 총 3건으로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달빛무지개분수’는 자연 지명으로 분류되고 ‘Moonlight Rainbow Fountain’로 번역되었는데, 자연 지명의 번역원칙에 따르면 맞지 않는 표기이다. 하지만 훈령의 자연 지명에 대한 정의가 “자연 발생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이므로, 잘못 분류 되었다. 훈령의 정의에 따라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인공 지명으로 분류 되어야 하며, 해당 용례에 인공 지명의 번역원칙을 적용했을 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주로 번역원칙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 오류 사례들이다. 반면 로마자 표기 오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한국관광공사의 ‘자라섬’의 경우 오타가 발견되었다. 올바른 번역표기라면 ‘Jaraseom Island’이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Jarasum Island’로 제시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오류 외에, 동일한 속성의 지명 내에서 한 두 건의 번역안이 전체적인 번역 흐름과 맞지 않게 개별적인 오류를 띠는 사례들도 더러 있었으나, 본 분석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문체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사례들은 훈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번역표기 사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훈령 속 예시들은 훈령을 준수하는 대표적인 번역대안들로서, 국가 표준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실제 훈령 제정 과정에 참여한 협의체들조차도 제시된 예시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훈령을 기준으로 번역대안을 제시한다는 안내 문구를 게재하면서도 실제로는 훈령에 부합되지 않는 예시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번역표기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과 보수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분석결과,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두 기관 모두 기본적으로는 훈령의 번역원칙 준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훈령을 준수하지 않는 번역대안이 별도의 체계를 갖고 존치되어 있는 듯하다. 바꾸어 말하면 훈령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번역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훈령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참여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의 시발로서의 훈령의 의미와 강제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번역지침으로 번역표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 훈령은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대상 용어 가운데 훈령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용어들이 일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통적으로 만든 자체 기준은 자연 지명의 후부요소에 대한 로마자 표기 여부 면에서 훈령과 다르다. 그 이유는 대상용어의 음절이 길어질수록 훈령을 적용시켰을 때 결과물이 한 눈에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십이선녀탕계곡’의 훈령에 따른 번역대안과 한국관광공사의 대안은 각각 ‘Sibiseonnyeotanggyegok Valley’와 ‘Sibiseonnyeotang Valley’이다. 이렇게 음절수가 일정 음절 이상인 어휘의 번역에 적용할 원칙이 별도로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훈령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훈령은 ‘떡방’과 한류드라마를 통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한식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식당에서 ‘육회’가 ‘six times¹⁵⁾’로 번역되고 있었던 실태는 오역을 논의할 때마다 회자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례였으며, 국가 차원 공공번역의 표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번역사를 고용하여 메뉴판을 번역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참고할만한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한류 및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공공번역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문체부 훈령’은 음식명에 대한 번역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중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공공번역 대상 분야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어 메뉴판’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역안을 제안하고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는 ‘어묵’의 영문 명칭을 마련하는 공모전¹⁶⁾을 개최한 것으로 보아 한국관광공사의 번역안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부처들이 서로 다른 번역안을 마련하려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어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훈령 제정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훈령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밖에 없다. 문체부 훈령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국가 주도의 공공번역 사업을 훈령이나 예규 제정 등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한 부처를 포괄하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번역정책을 수립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다른 접근 방식의 번역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국가차원의 번역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이에 따라 번역결과물을 감수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정호정과 임현경의 연구에서 보고한 선진사례의 하나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은 ‘평가분석 단위부서’를 운영하여 번역결과물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번역정책과 이에 따른 번역지침을 제정한 후, 이를 구체화한 ‘번역수준평가지’(Quality Assessment Tool)를 사용하여 엄격히 평가함으로써 전체적인 번역수준을 관리한다. 국내의 현재 공공번역의 문제는 이렇게 통일되고 일관된 번역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번역지침을 제정하는 등 표준화된 번역을 구현하고 번역 수준을 관리할 통합된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훈령 발표 이후에도 이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시정을 강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두 번째 대안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사전을 제공하여 통일되지 않고 분산돼 있다. 또한 각 사전들은 제공하고 있는 표제어들의 분야와 범위도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 사전의 경우 지하철 역명의 데이터는 검색되지 않고 있고, 이 세 사전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데이터는 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번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선진사례의 온라인 서비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국가차원에서 독립적인 웹 기반 번역수급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번역을 의뢰하거나 담당할 때 이를 통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정호정과 임현경). 일원화된 업무 흐름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를 무료로 공개하여 활용성도 높이고 있다(정호정과 임현경). 이를 토대로 하여 국내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으로 구축하여 끊임없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 문화관광콘텐츠의 해외 보급 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리 문화관광콘텐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선별 개발하고 이를 다시 해외 수요자들이 이해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대안을 제시하고 표기를 통일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문체부 훈령이 정부차원에서의 번역 표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 번역정책 면에서 진일보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의 제정을 일부 유관기관의 자발적 참여에만 맡겨놓는 한편, 그 성과물의 적용 역시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우리 문화관광콘텐츠 번역표기의 일관성 확보 및 표준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기왕 제정된 훈령이 유관부처 번역대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공공번역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번역 표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고자 하였다.

Notes

- 1) BK21 통역번역 특화사업단 자격검정팀BK21 통역번역 특화사업단 자격검정팀. 「공공기관 번역사 대상 재교육에 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5 (2001): 259-272. Print.
- 2)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
- 3) ①양병선과 장숙현. 「공공용어의 영어번역 및 표기지침과 한국문화 관련용어 초등영어교과서 분석 및 제안」. 『현대문법연구』, 93 (2007): 91-118. Print.
②심보경. 「공공언어 표기실태 연구-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표지 로마자·영문표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8 (2018): 27-49. Print.
- 4) 1차 회의 2월 6일 개최, 2차 회의 3월 27일 개최, 3차 회의 5월 21일 개최
- 5) 국토부 「도로 표지 규칙」, 「도로 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 국어원·한국관광공사·서울특별시,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지침(안)」
- 6)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회의 일정상 3차례의 회의에서 모든 논의와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점, 협의과정 초기에는 많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다가 협의 마무리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7) 참고로, 공공용어의 영한 번역에 상응하는 지침은 외국어의 인명 및 지명의 국문 표기 규칙을 규정한 「국어의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 3. 28.))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외래어’는 국어에 동화되지 않은 외국어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다(「표준어 규정」 제1부 1장 2항 참조). 단, 범위가 인명과 지명에 한정되어 있고, 외국어를 국문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온전한 ‘공공용어의 영한 번역지침’이라고고는 볼 수 없다.
- 8) 국립국어원의 발주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김혜림 외(김혜림 외 6인)는 ‘의미역’과 ‘대응역’을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 9) 이는 2013년 정호정 외 6인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10) 문체부 소속기관이자 훈령 마련에 주축이 되었던 국립국어원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공공언어 통합 지원>, <https://publang.korean.go.kr/>). 해당 기관은 훈령 제작의 주축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번역이 이뤄지고 있는 바가 명백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1) 평화시장 공식 영문 홈페이지(<http://pyounghwa.com/eng/>) 참조.
- 12)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에서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에 속하는 후부요소들의 번역안과 이를 표제어에 적용한 사례들을 ‘표준 번역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훈령’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같은 후부요소 의미역 적합성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 13) ‘한강의 기적’의 번역안(miracle on the Han River) 중, ‘한강’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
- 14) ‘승례문(남산방향)’의 번역안(Sungnyemun Gate (To Namsan)) 중, ‘승례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
- 15) 이 오역사례는 2008년 9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 “맛난 육회를 번역하면 ‘six times?’”의 최초보도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기사인 2019년 3월 16일자 아시아투데이의 카드뉴스 “육회가 six times?...외국인들이 놀란 이유”까지 다양한 언론사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다.
- 16) 이 공모전은 2019년 5월 27일 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어학, 어묵업, 수산무역 등 7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심사한 후 한국외대의 감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eomuk', 우수상은 'sea quenelle', 입선작은 'badasal'이며, 수상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문이 많았는지 수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안내문이 추후 게시되었다. 참고로 한 국관광공사의 번역은 'fish cake'으로, 수상작과는 다르다.

인 용 문 헌

- 10초 안에 끝나는 카드뉴스. 「BTS 그리고 이것? ...해외를 휩쓴 新한류 열풍」. 『아시아투데이』 2019년 8월 6일: Web.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규칙.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223호(2016. 1. 1).” Web. 10 Sept. 2019.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91호(2015. 12. 29).” Web. 10 Sept.
- 김혜림 외 6인. 『주요 관광문화 용어를 대상으로 한 공공번역 수용성 연구』. 국립국어원, 2018.
- 문화재청. 「혼란스러웠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통일된다」. 『문화재청』 2013년 7월 30일: Web.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국립국어원)와 농식품부, 주요 한식 명칭 로마자 표기 및 번역 표준 시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10월 10일: Web.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국어원)와 농식품부, 주요 한식 명칭 일본어 번역 표준 시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11월 7일: Web.
- 문화체육관광부. 「‘한글’의 외국어 이름, 이렇게 쓰는 것 어때요? - ‘한글’ 영,중,일 번역 표준 시안 발표, 국민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4월 22일: Web.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9호 (2015.12.29.)”. Web. 10 Sept. 2019.
- 문화체육관광부. 「‘남산’ 영문표기, 이제 ‘Namsan Mountain’으로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6월 17일: Web.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문체부(국어원)와 농식품부, 주요 한식 명칭 일본어 번역 표준 시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7월 13일: Web.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2017. 3. 28.)”. Web. 10 Sept. 2019.

- 유승목. 「'新한류', 북미 달궜다...KCON, LA서 100만 관객 돌파」. 『머니투데이』 2019년 8월 19일: Web.
- 이창수. 「영어와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의 테너 (담화 참여자 관계) 분석」. 『영미 연구』, 18 (2008): 159-181. Web.
- 정호정, 염행일, 신지선. 『국가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공공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2007.
- 정호정, 이상원, 조상은, 임순정, 왕기맹, 박현주, 임현경.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3.
- 정호정, 임현경. 『공공번역 표준화의 모델: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13.
- 정호정, 박지수. 「통번역학 연구 대상으로서의 통번역정책 - '번역청' 설립 및 통역사 인증제 도입 정책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통역과 번역』, 20.3 (2018): 105-140. Web.
- 조용철. 「박양우 장관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콘텐츠 산업 규모 133조원 달성"」. 『파이낸셜뉴스』 2020년 1월 2일: Web.
- 최혜원. 「공공용어 번역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4.2 (2014): 3-22.
- 최혜원. 「공공부문 번역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공공번역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5.
-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300」. 『한식재단』 2017년 3월 28일: Web.
-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700」. 『한식재단』 2019년 4월 17일: Web.
- Nord, Christiane.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 & New York: Rodopi, 2005.
- Vinay, Jean-Paul and Jean Darbelnet.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Trans. Juan C. Sager and M.-J. Hamel. www.academia.edu.

Abstract

National Translation Directive and Public-Sector Translation Standardization Policy: A Study of Public Transl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irective No. 279

Cheong, Ho-Je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oi, So-H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9, the global popularity of a 7-member boy band BTS, a symbol of K-POP strength, and the movie *Parasite* were met with aggressive global enthusiasm,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surpassed the 17 million mark. These phenomena combined give rise to a social need to objectively evaluate the current whereabouts of public-sector translation practice with a view to delivering appropriate cultural contents to foreigners in reliable translations.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d look at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Directive No. 279, the first-ever Korean government-level regulation aimed toward public-sector translation standardization. Specifically, efforts will first be made to introduce the directive by briefly discussing its enactment procedure, scopes and contents covered, and its roles and significances. Then an analysis will follow of specific translation cases found in three on-line dictionaries respectively operated by three representative translation-related government organs in Korea: Seoul Metropolitan City, Korean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nclusions will summariz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together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public-sector translation in Korea. That way, public-sector translation in Korea will be able to prove instrumental in making Korea more attractive to the eyes of foreigners with needs for Korean cultural and tourism contents, and, thus,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on the global scene.

Key Words: Public-sector translation, cultural contents, translation standardization, translation quality control,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irective

논문접수일: 2020.01.22

심사완료일: 2020.02.17

게재 확정일: 2020.02.27

이름: 정호정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이메일: angelhjchg@hufs.ac.kr

이름: 최소희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메일: choisohi@hufs.ac.kr

